

INVITATION

신영자산운용  
2019 투자자 포럼 초청

- 펀드운용 보고 및 펀드매니저와의 대화 -

【 모시는 말씀 】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그동안 신영자산운용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올해에도 투자자포럼을 개최하여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주식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펀드매니저와의 대화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과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 자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시 간 | 14:00~16:30

장 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 (자세한 위치 등은 참가신청시 확인 가능)

참가신청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syforum2019.co.kr>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2018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10월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교역비중이 큰 한국이 타격을 받으며 2017년 상승분을 반납하고 상승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맡겨 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펀드 성과는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유동성 파티의 종언과 금리인상 등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그간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며 긴축에 나섰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이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국내 경기도 둔화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고용과 소비가 악화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돌파하였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빚은 늘어나 소비가 둔화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한 글로벌 경기, 그리고 그 속에서 구조적 성장 저하 등 자체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항상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을 때가 오히려 좋은 투자의 기회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준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기업들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비추어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시가 배당수익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한 저평가 수준이지만 단지 이 한가지 사실이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경제와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선별하여 충분히 싼 가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22여 년간 고수해 온 이른바 "가치주" 투자입니다. 저희는 불확실한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 자산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실천해 왔고 항상 결과는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만 2018년의 투자성고가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투자환경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객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좋은 성과를 돌려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신영자산운용은 임직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지속적으로 투자기회를 발견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4회째를 맞는 투자자포럼\* 에서 이러한 저희 펀드 투자전략과 향후 운용계획을 펀드매니저와 함께 짚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회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만큼, 저희 또한 운용을 임함에 있어 한결음 더 진지한 자세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 신영자산운용 투자자포럼 : 2019년 3월 14일(목) 오후2시~코엑스 오디토리움)

**저희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허 남 권**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8. 10. 27. ~ 2019. 01. 26.



##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 펀드애니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이익은 얼마나 냈는지 같이 살펴 볼까요.

유통, 섬유·의복, 금융업 등의 업종이 부진하였으나 우리 펀드가 들고 있는 주식들의 예상배당수익이 반영되면서 시장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어요. 연말은 배당의 계절이라 주식이 올라서 얻는 이익 말고도 투자자들에게 나눠 주는 배당으로 인한 수익이 있는데요, 우리 펀드는 기업으로부터 3,4월에 받을 예상 배당을 계산하여 펀드에 미리 반영하였답니다.

1월은 한국주식시장이 오르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벗어나고 있어요. 1월에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서 이와 같이 변하는 속도를 앞으로도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이 회복된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요. 무역전쟁과 같은 글로벌 문제, 국내 정책 문제 등 시장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많지만 혁신, 지배력 강화 등으로 기업들 간에 차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우리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19. 01. 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 8.04 %**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8. 10. 27. ~ 2019. 01. 26.) +8.04%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6.73%인 것에 비하면 1.31%pt만큼 높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

**+ 32.72 %**

비교지수 : +12.26%

비교지수대비 : +20.46%pt

최근 3년 수익률

**+ 25.59 %**

비교지수 : +15.35%

비교지수대비 : +10.24%pt

최근 1년 수익률

**- 15.32 %**

비교지수 : -13.76%

비교지수대비 : -1.56%pt

**26,297** 백만원

순자산 총액

**+9.36%pt**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9.36%pt 커졌어요.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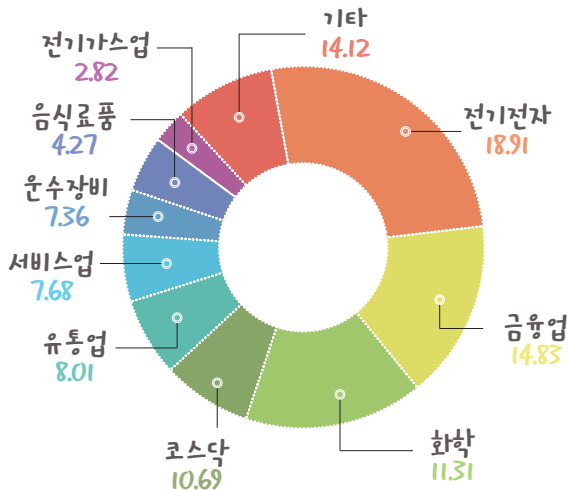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19. 01. 26. 단위: %)

1위	삼성전자	13.91	6위	SK케미칼	1.76
2위	LS	3.56	7위	LG화학	1.73
3위	CJENM	2.48	8위	SK	1.71
4위	KCC	1.77	9위	삼성물산	1.67
5위	대림산업	1.76	10위	삼성SDI	1.65


2019년 1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지난번과 같이 삼성전자, LS와 같은 종목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네요.

#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나요?>

  
**CJ ENM**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제작, 배급하고 해외에 수출하여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지주회사이며 건설업과 국제무역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KCC**

KCC는 실리콘, 건축자재, 유리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종합화학회사입니다. 건축 및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작게는 집 안 TV, 컴퓨터 부터 냉장고에 KCC의 제품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 플랜트 등의 산업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나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19. 01. 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55,734	2,885

**매도**

수량	금액
80,794	2,720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11.19	44.40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18.04.27 ~ 2018.07.26

**22.39%**

2018.07.27 ~ 2018.10.26

**9.62%**

2018.10.27 ~ 2019.01.26

**11.19%**

###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배당주 이야기

배당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투자자들이 가진 지분에 따라서 돈이나 주식으로 나눠주는 것을 뜻해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1년 중 특정한 날에 갖고 있기만 하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으로 돈을 넣으면 들어오는 이자와 비슷한 개념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100만원 넣으면 받는 이자와 배당주에 100만원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배당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비교해서 투자계획을 세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의 투자계획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배당주식의 특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까요?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이 다시 투자되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복리는 중복 된다는 뜻과 이자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된답니다. '복리의 효과'는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요. 1,000원짜리 주식이 한 달에 10% 올라가면 100원이 올라서 1,100원이 되지요. 1,100원짜리가 다시 10% 올라가면 110원이 올라 1,210원이 됩니다. 1,210원이 또 다시 10% 오르면 약 120원이 올라서 1,320원이 되지요. 이처럼 단순히 처음 투자금액인 1,000원에만 계속 10%가 붙는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10%가 붙기 때문에 금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 복리의 효과예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이자에 이자를 쳐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하게 되면 배당이 이자처럼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년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엄청난 복리의 효과가 생겨요. 이와 관련하여 워렌버핏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복리는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서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끝에 가서는 정말 큰 눈덩이가 된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pixabay)

기업이 배당을 투자자들과 나누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진 자본이 줄어들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원래 많거나 매년 충분한 이익을 만드는 부자집 같은 기업이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은 그만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이는 기업이 많아요. 또한 안정적인 만큼 시장지수의 움직임에도 휘둘리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지요. 우리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도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배당주를 발굴해서 투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주식이 올라서 얻는 수익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서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도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과 알짜 기업이 어딘지, 또 유가, 금리 등 지속적으로 변하는 경제상황에서 배당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주식)의 3개월 수익률은 +8.04%로 비교지수 +6.73% 대비 1.31%pt 상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 <운용경과>

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유통, 섬유·의복, 금융업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코스닥이 큰 하락하며 펀드의 보유 종목도 영향을 받아 절대적으로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예상배당수익률이 반영되며 부진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달러강세 및 미국 금리상승으로 인한 신흥국 유동성 위축 우려 등 대외변수로 투자심리의 악화가 지속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이던 미국 증시마저 급락하며 연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해 들어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완화 표명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협상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해소되며 외국인 자금의 유입으로 일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안정성이 부각된 전기가스, 음식료 업종과 장기간 소외되어 있었던 운수장비 업종이 양호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우려로 전기전자, 기계 업종과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펀드는 KOSPI의 상승에도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가치가 있는 중소형주의 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운용계획>

1월 들어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의 악화, 달러 인덱스의 정체, 마-중 무역분쟁 격화 완화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한국 주식시장의 절대적, 상대적 저평가 상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에도 달러 강세 압력 완화 속에 중국 경기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 제시 및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기대감으로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중 무역분쟁 뿐 아니라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정치적 마찰 등이 산재하고 글로벌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 기업의 실적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1월의 반등의 속도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회복된 지수대에서의 높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 주식시장은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 보다는 기업 본질의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며 차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저평가된 기업 중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주주 환원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산업 변화에 수혜가 가능한 산업과 글로벌 환경 규제 아래 성장 가능한 산업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실적 성장이 더욱 희소해진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기업의 저가 편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경제의 소비, 투자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각국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 발굴에 집중할 것입니다. 무역분쟁과 패권전쟁, 자국중심주의, 한국의 공정사회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2019년은차츰 경제적 실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또한 경기의 둔화, 불확실성의 확대, 성장기회의 희소성에서도 혁신, 지배력 확대 등 경쟁력을 높여가며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과 기업의 저평가 수준만을 미래 투자 수익의 담보로 삼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 편입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